

# 아픈 역사 위에 피운 '문화 꽃'... 생태마을된 영화촬영소

나눔·교류·소통  
공유 경제,  
문화 예술을 입다

4 베를린 우파 파브리크



오래된 영화 촬영장을 활용한 우파 파브리크 정문



독일의 대규모 영화촬영장이었던 우파 파브리크는 공연장 등 문화공간 뿐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동물농장도 운영하는 문화생태마을이다.



각 건물 위에 조성된 옥상 정원은 에너지 절약에 큰 효과가 있다.



매년 수백건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 다목적 공연장.

베를린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생태(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 생활 공동체. 빠른 속도로 앞만 보고 달리는 대도시 삶 속에서 사람들이 언제부터든 꿈꾸는 삶의 모습 중 하나다. 최근에는 '희망'에만 머물지 않고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박한 공동체를 직접 일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독일 베를린 남부에 위치한 문화 생태 공동체 우파 파브리크(Ufa Fabrik). 30여년 전, 예술가, 생태 운동가 등 일군의 젊은 활동가들이 좌충우돌하며 새로운 꿈을 꾸던 공간이다. 지금 이곳은 1년에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문화 아이코닉이 됐다.

8월 초 찾은 우파 파브리크의 입구는 얼핏 소박한 공원의 입구처럼 보였다. 오래된 나무가 무성하고, 화려한 리모델링 대신, 다소 투박한 듯한 모습에 옛 정취가 그대로 묻어난다.

우파 파브리크는 원래 독일 최대 영화사중 하나인 유니베르쎄움영화사(UFA·Universum Film Aktien Gesellschaft)가 촬영장으로 활용하던 공간이다.

1917년 창립한 영화사는 촬영장을 현재 우파 파브리크가 있는 서베를린에, 필름 현상소는 동베를린에 두고 독일 영화 전성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분단과 함께 베를린 장벽이 놓이면서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촬영소는 방치됐다.

1965년 재정 문제로 문을 닫은 공간에 다시 온기가 스며든 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술인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부터다. 1978년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예술가들이 토론을 거듭하며 모델을 만들었고, 이듬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1만 8000㎡의 넓은 공간에 자리한 시설은 무척 다양하다. 국제문화센터, 공연장, 개방형 열린 무대, 빵공장,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대안학교(자유학교), 레지던시, 동물농장, 어린이서커스 학교, 동양무술을 배우는 체육관 등 언뜻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공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파 파브리크를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생태마을이다. 이날

## 베를린 장벽으로 방치된 영화 제작소 예술가·생태운동가 모여 예술조합 결성 공연장·동물농장 등 이질적 공간 조화 년 20만명 방문...전 세계에서 벤치마킹

안내를 맡은 베르너 비아르 탈라씨가 가장 먼저 데려간 공간은 각 건물의 옥상 녹색 정원이었다. 옥상에 우거진 풀들은 여름철 온도를 낮추고, 빗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해준다. 또 짚풀을 이용한 보온 역시 에너지를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우파 파브리크는 3개의 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영화사 시절 시사회를 진행하던 공간은 고풍스러운 멋을 그대로 살려 연극과 음악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지역민들이 결혼식 등 이벤트를 하는 공간으로 빌려주기도 한다.

국제문화센터에는 3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이 갖춰져 있으며 바로 옆에는 500석이 넘는 야외 공연장이 자리잡고 있다.

우파 파브리크는 유럽 공연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1년이면 수백 건의 공연이 펼쳐지고, 베를린 도심 곳곳에서도 이곳 공연 축제를 안내하는 포스터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의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공연을 하기도 하는 등 세계 각국과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있어 특히 젊은 실험적 예술인들은 우파 파브리크를 통해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이날 공연장에서 연습중이던 독일 퍼포먼스 팀 '크래임' 팀원들은 우파를 '창조적 장소'라고 칭했다. 특히 '우파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팀을 위한 엄청난 홍보라고 말했다.

크래임 대표 막스 밀리안 림백씨는 "우파에서는 가난한 예술가

들에게 공연 기회 뿐 아니라, 연습장소까지 제공한다"며 "무엇보다 우파 축제는 베를린 뿐 아니라 전세계에도 많이 알려져 이 무대를 계기로 여러 나라에서 초청을 받을 수도, 스폰서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파 파브리크는 예술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예술 관련 프로젝트 뿐 아니라, 교육,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가동중이다.

확정도 없고, 점수도 없는 '자유학교'는 6세~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형 학교다. 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형 동물농장학교와 놀이터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아기자기한 시설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산모 및 유아 보육 시스템, 독거노인 돌봄 등을 진행중이다. 특히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5살 난 딸 요안나와 놀이터를 찾은 베티나 두하스씨는 "우파 파브리크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다른 정규학교에서도 소개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며 "특히 아이들 인성교육에도 도움을 주는 목공소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건물과 부지는 베를린 주정부로부터 66년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다.

운영 예산의 60%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40%는 자체 충당하고 있다. 밀을 직접 빵이 만드는 유기농 빵은 이곳의 대표적 수익원이다. 매일 2000여개 빵이 생산되며, 직영하는 유기농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다. 빵을 비롯해 다양한 유기농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가게는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다.

그밖에 레스토랑 수입, 43개 베드를 갖춘 게스트 임대료,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비, 각종 공연 프로그램 티켓 판매 등도 주 수입원이다.

우파 파브리크의 베르너 비아르탈라씨는 "우파 파브리크는 예술과 사회적 공헌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는 베를린의 대표 공간으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한다"고 말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Dunlopillo**  
Feel the Difference

던롭침대 & 온열/안마침대

소파 앤틱/모던

식탁/TV장

NAVER
홍스페이스
자하 2층~5층 가구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 1899-0240